

융복합시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조절효과

김은덕, 박찬상*
서울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The Moderating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Eun-Deok Kim, Chan-sang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yo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과 그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년간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의 연구자료가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다. 회귀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관련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아의 내면화에 영향을 끼쳤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내면화인 우울증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었다. 그것에 기초하여, 교육과 복지 제안들이 만들어졌다.

키워드 : 유아의 문제행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 참여, 내면화, 외면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To reveal this, the 3rd year data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like below. First,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a main factor having effects on children's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Th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Second,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had no effect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Third,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effects on children's internalization based on the interactions with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contraction and depression/anxiety. Based on it, the educational and welfare suggestions were made.

Key Words : Problematic Behavior, Mother's Parenting Stress,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Internalization, Externalization

1. 서론

유아기는 여러 발달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이시기에 형성되는 도덕성은 유아의 사고, 정서,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며[1]. 이 시기에 잘못 형성된 사고나 정서는 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 청소년의 비행 역시 유아기에 잘못 형성된 문제행동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방지할 경우 성장과정에서 그 문제행동이 강화되거나 또는 다른 유형의 문제행동으로 변화되기도 한다[2].

즉,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초등학교 이후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3], 학업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가 하면[4],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5]. 그리고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방지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까지 이르기도 한다[6]. 따라서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해서 이른 시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행동은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유아의 연령에 맞는 발달적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유아 개인이 속하고 있는 사회문화권에서 인정하는 행동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적 측면에서 볼 때 주어진 환경적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7]. 이때 문제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의 발생빈도, 정도(평균), 지속성, 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행동으로 진단하게 된다[8].

Achenbach는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를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요인을 크게 광범위한 범위와 협소한 범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9]. 진자에 대하여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 등 2가지로 구분했고, 후자에 대하여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미성숙행동, 과잉행동, 정신분열증, 비행, 공격행동, 성문제 등 9가지로 구분했다. 이때 외현화 문제행동이란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비행과 공격성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내면화 문제행동이란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과잉 통제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 주의집중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유아의 문제행동 판단은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부모나 교사가 지도하는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0]. 이때 외현화 문제는 주위집중, 공격적 행동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사회에 대한 공격성, 적대성, 과잉행동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적응 행동을 의미하고, 내면화 문제는 정서불안정, 불안우울, 신체화, 위축 등으로 불안한 정서와 신체적 증상,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등과 같이 지나치게 억제되거나 철회된 행동을 의미한다[11].

그동안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와 관련된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12].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간 맞벌이 가정이 4배 정도 증가하였다[13].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은 10년 째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14]. 이런 현상은 결국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일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육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역할부담 가중, 그리고 육아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심리적 고통이 축적됨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어머니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유아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일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15,16].

한편 우리나라도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이념적인 면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진전되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을 보면 2008년 1.2%, 2010년 2.0%, 2011년 2.4%, 2012년 2.8%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은 이념적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17]. 따라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동시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자녀양육에 있어 간과되고 있던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란 자녀

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및 물리적, 신체적 상호관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18].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Bigner가 제시하는 내용이 대체로 모든 걸 포함한다[19]. 그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유아돌보기 역할, 유아와 놀아주기 및 함께 운동을 하는 역할, 유아에게 집안일이나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역할, 공동생활에서 유아의 활동을 가르치는 역할, 책을 읽어주는 역할,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애정을 표시하고 혼욕하는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Barnett&Baruch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해서 유아에게 직접 관여하는 활동과 가사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20].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병원에 데려가기, 유치원 등하원 시키기, 자녀의 선생님 방문하기, 자녀의 방을 청소하거나 잠자리 살펴주기, 자녀와 외출하기, 건강 돌봐주기 등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집안 청소하기, 세탁하기, 식사 준비 및 식사 후 정리하기, 세금 납부하기 등이 있다. 이런 구분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 범위를 그동안 간과되었던 가사활동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시간은 어머니의 양육 참여 시간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이고 [21], 어머니가 일자리를 가진 경우에도 자녀양육은 대부분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다[22]. 특히, 우리사회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의 사회성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29]. 그런데 이런 연구들의 결과는 대부분 아버지 양육 참여 정도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임현주는 아버지 양육 참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아의 주의집중[27], 공격성, 수면문제행동, 기타문제행동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Shin et al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내면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25]. Ryu et al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 중 여가지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정서행동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아버지의 생활지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주의집중, 모방놀이, 사회정서행동이 높아진다. 또한, 아버지의 가사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를 낮추는 것을 보이고 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26].

Kim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참여가 높고 이러한 양육 참여의 높아짐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3]. Moon[24], Fagan & Iglesias 그리고 Pleck & Masciadrelli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내적 통제력을 보다 강화하여 사회적 활동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8,29]. 결국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에 있어 보호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는 이미 제시한 자료들 이외의 것을 살펴보더라도 주로 유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나 어머니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30-35].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일종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이후 학령기나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개입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사이에서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의 감소와 사회적응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상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2.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기로 한다.

- 가설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하나이지만 실질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 두 문제행동의 대표적인 형태인 위축, 불안우울, 주의집중, 공격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형은 네 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2.1.1 연구대상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성인기에 이르는 2027년에 이르기까지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12년에 조사한 5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조사시점 당시 만 4세에 해당하는 유아들이다. 패널 데이터에서는 총 2,150명으로 나타났으나 본 논문의 주요변수에 대하여 일관되게 결측을 보이는 자료를 제거한 후 총 1,21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아동은 남녀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비장애 아동이다. 지역분포는 주로 서울과 경인 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연령대는 주로 3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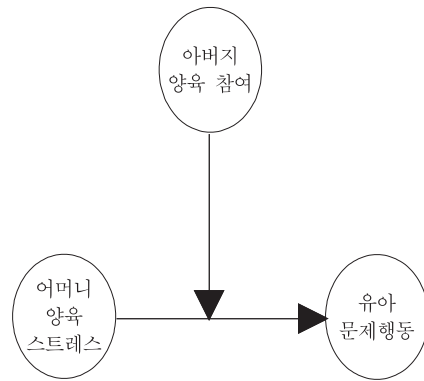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측정도구

2.2.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도구의 출처는 Kim & Kang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이다[39].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장면에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한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내용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취업모(就業母)이기 때문에 자녀를 타인 양육 아래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아동패널에서는 이들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패널 중 어머니에게 묻는 스트레스 질문을 사용하였고, 이는 부모역할에서 오는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대별하는 내용이므로 본 논문에서 개념화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도 부합한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2.2 아버지의 양육 참여 척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측정도구의 출처는 홍성

레(1995)의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이다. 본 척도는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배우자 역할, 부모역할, 친족역할, 가사 분담자 역할, 가계경제관리 역할, 부양자 역할, 대외적 역할 등 7개의 영역으로 측정하고 있다. 아동패널은 이중 아버지의 양육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역할을 측정하는 6문항 중 4문항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고자 하는 것임으로 아동패널이 사용한 척도와 일치성을 갖는다.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 한다.', '남편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 준다'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757로 나타났다.

2.2.3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

아동의 내면화문제에 대한 척도는 오경자·김영아(2009)가 개발한 'CBCL 1.5-5 매뉴얼 개정판'을 이용하였다. CBCL 1.5-5는 만 18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척도로 개발되었다.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100개의 문항에 대하여 최근 6개월 간 아동이 보인 행동을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의 범위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항들 중 내면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위축에 해당하는 8문항과 불안 우울에 해당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외현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주의집중문제에 해당하는 3문항과 공격적 행동에 해당하는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차례대로 .652, .662, .641, .847로 나와 모두 일정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2.3 분석방법

연구문제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가설검증을 하기에 앞서 회귀 식에 투입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것으로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와 다중 공선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보통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와 표준화 값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을 만들 때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해서 표준화 값을 구하여 곱하였다. 그 외에 척도의 신뢰도 분석,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24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주요변수의 특성

주요변수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30.76 (SD=6.94),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평균 14.15 (SD=2.71), 위축은 평균 2.10 (SD=1.85), 불안 우울은 평균 3.52 (SD=2.12), 주의집중문제는 평균 1.34 (SD=1.26), 공격성은 평균 6.83 (SD=4.58)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평균들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대비해서 검토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아의 문제행동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3.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앞서 회귀 식에 투입되는 변수들 간의 다중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Maternal Stress	1,216	11.00	52.00	30.76	6.94
Father's Child Rearing	1,169	4.00	20.00	14.15	2.71
atrophy	1,216	.00	13.00	2.10	1.85
Anxiety, depression	1,216	.00	14.00	3.52	2.12
Attention problem	1,216	.00	6.00	1.34	1.26
Aggression	1,216	.00	26.00	6.83	4.58

공선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행동과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Maternal Stress	Father's Child Rearing	atrophy	Anciety, depression	Attention problem	Aggression
Maternal Stress	1					
Father's Child Rearing	-.170**	1				
atrophy	.208**	-.045	1			
Anciety, depression	.211**	.000	.490**	1		
Attention problem	.217**	-.076**	.256**	.246**	1	
Aggression	.283**	-.069*	.380**	.469**	.469**	1

**p<.01

독립변수로 투입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상관계수가 -.170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50에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수를 회귀 식에 투입하더라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위축 (r=.208, p<.01), 불안우울 (r=.211,

p<.01), 주의집중 문제 (r=.217, p<.01), 공격성 (r=.283, p<.01) 등 문제행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인 주의집중 문제 (r=-.076, p<.01), 공격성 (r=-.069, p<.05) 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상관관계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의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의 내면화 문제에는 영향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3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 양육 참여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아버지 양육 참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상호작용항으로 만들어 회귀 식에 투입할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앞서 제시된 상관계수와 Durbin-Watson의 임계치, VIF 계수를 종합할 때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위축 (F=18.93, p<.001), 불안우울(F=19.511, p<.001), 주의집중문제(F=19.037, p<.001), 공격성(F=34.294, p<.001) 등 모든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Impact on Problem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 put variable	B	t	F	R ²	d임계치	VIF
atrophy	Maternal Stress	.053	6.848***				
	Father's Child Rearing	-.012	-.611	18.903***	.046	2.040	1.006-1.035
	Maternal Stress ×Father's Child Rearing	.138	2.809**				
Anciety, depression	Maternal Stress	.066	7.405***				
	Father's Child Rearing	.025	1.096	19.511***	.048	2.026	1.006-1.035
	Maternal Stress ×Father's Child Rearing	.115	2.038*				
Attention problem	Maternal Stress	.036	6.984***				
	Father's Child Rearing	-.018	-1.329	19.037***	.047	2.050	1.006-1.035
	Maternal Stress ×Father's Child Rearing	-.035	-1.060				
Aggression	Maternal Stress	.186	9.784***				
	Father's Child Rearing	-.040	-.832	34.294***	.081	2.030	1.006-1.035
	Maternal Stress ×Father's Child Rearing	.151	1.247				

* p < .05, ** p < .01, *** p < .001

이때 각 회귀 식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향성은 양의(+) 방향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인 위축, 불안우울, 주의집중문제, 공격성은 모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상관관계분석의 경우와 달리 유아의 문제행동 네 영역 어느 부분에도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내면화의 하위 요인인 위축($t=2.809, p<.01$), 불안우울($t=2.038, p<.05$)에서는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유의하였으나, 외현화의 하위 요인인 주의집중문제와 공격성에서는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위축과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앞서 분석한 조절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조절변인의 고저에 따른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위축과 불안우울 모두에 대해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은 집단의 기울기가 낮은 집단의 기울기보다 더 크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짐에 따라 유아의 위축이나 불안우울의 줄어드는 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위축과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높여주면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위축 및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회귀분석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의 네 영역 모두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1은 그대로 채택을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인 위축, 불안우울,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은 더욱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은 유아의 내면화의 문제행동인 위축과 불안우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드러났으므로 가설 2는 부분 채택을 하였다(가설 2-1 채택, 가설 2-2 기각).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내면화의 문제행동인 위축과 불안우울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미 앞서 살핀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인 것을 알 수 있다[15,16]. 본 논문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다소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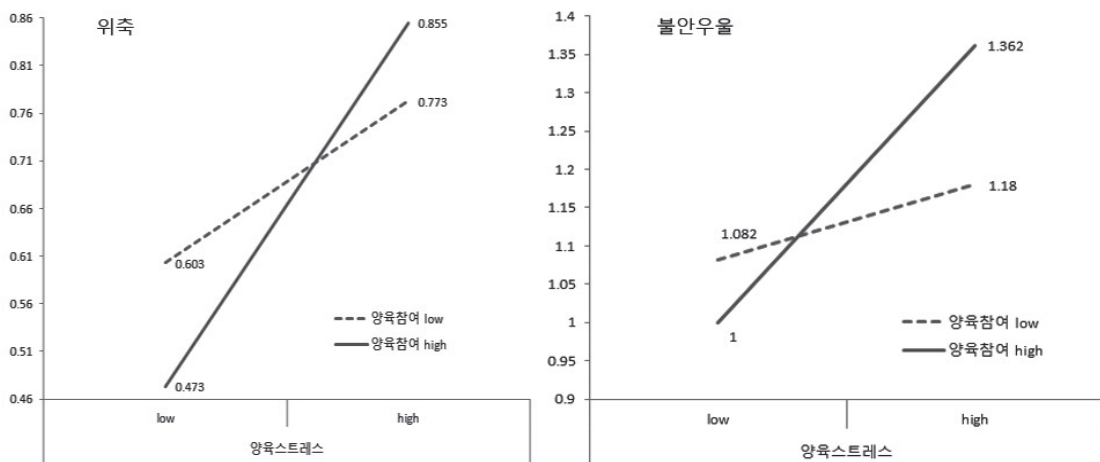


Fig. 2. A Parenting Participation between the level of rearing and rearing

관관계 분석에서는 일관되게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유아의 외현화의 문제인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성이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회귀분석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때 직접적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아의 내면화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지적 발달[36-38], 사회성, 내적통제, 공감, 또래상호작용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을 볼 때[23,24,28,29],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내면화의 문제인 위축과 불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유아에게 있어 특별히 내적 요인이 되는 내적 통제력을 갖게 하거나[24,29], 공감능력을 높여준다는 연구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9].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인 위축과 불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확대는 양성평등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아버지의 육아휴직 등 양육 참여에 있어 활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아의 심리적인 적응을 위해서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첫째,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만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허용이 아니라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남녀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무조건 사용

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남자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보충해, 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자녀양육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인식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는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남성의 육아참여가 육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기관에서 예비부모 및 부모역할 교육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롯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발달이론에 따르면 적기성이 있다. 유아시기에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공하면 유아는 어려서부터 심리사회 적응에 있어서 보다 적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시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당위성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갖게 되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연구물도 부족한 시점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는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또는 시대적인 요구로서만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본 논문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조절효과를 보는 연구로서 비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연구가 되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아무리 줄여도 양육이라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 및 심리적응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우선,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23-29]. 이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보호요인으로써 아버

지의 양육 참여를 충분히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내면화 문제에 있어서는 보호요인으로써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보였으나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는 보호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충분히 추적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여러 양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면을 연구에 포함시키지는 못하였다. 넷째,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및 경로를 파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는 이후에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사이의 완충작용을 연구할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 및 사회적응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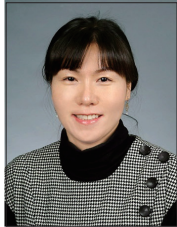
- [1] J. W. Santrock. (2007). *A Topical Approach to Life-Span Development*. NY : McGraw-Hill Companies.
- [2] G. R. Patterson, D. Capaldi & L. Bank. (1991).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An earlier draft of this chapter was presented at the Earls court Conference*. NJ : Erlbaum.
- [3] C. H. Qi & A. P. Kaiser. (2004). Problem Behaviors of Low-Income Children with Language Delays : An Observation Stud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3), 596-609.
- [4] J. B. Tomblin, X. Zhang, P. Buckwalter & H. Catts. (2000). The Association of Reading Disability, Behavioral Disorders, and Language Impairment Among Second-Grade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4), 473-482.
DOI : 10.1017/s002196300000559x
- [5] S. B. Campbell & L. J. Ewing. (1990). Follow-up of Hard-to-Manage Preschoolers : Adjustment at Age 9 and Predictors of Continuing Symptom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6), 871-889.
DOI : 10.1111/j.1469-7610.1990.tb00831.x
- [6] E. G. Feil, H. H. Severson & H. M. Walker. (1998). Screening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elays : The Early Screening Project.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1(3), 252-266.
DOI : 10.1177/105381519802100306
- [7] E. J. Mash & D. A. Dozois. (2003). *Child Psychopathology : A Developmental Systems Perspective*. *Child Psychopathology*, 3-71.
- [8] R. Wicks-Nelson & A. C. Israel. (1991). *Behavior Disorder of Childhood*. NJ : Prentice Hall.
- [9] T. M. Achenbach. (1991). *Manual for the Teacher's Report Form and 1991 profile*. USA : University of Vermont.
- [10] Y. Kim, T. S. Han & H. J. Hwang. (2004). A Study on the Relativ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Cognitive Ability and Temperament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24(6), 277-298.
- [11] S. N. Choi & Y. K. Moon. (2016). The Influences of Child Daily Stress and Parental Discipline Style,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The Gender.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7, 125-156.
- [12] Y. J. Bae.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s' effortful control,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rosocial behavior, and cognitive problem-solving 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13] Newsis. (2016). *In the Era of Twilight Parenting due to the Increase of Dual-Income Families, the Health Signal of the Senior Class Medical Room Uninsured*. Newsis. <http://newsiswire.co.kr>
- [14] JTBC. (2016). *10 Years of Parental Leave. Women still bear the burden*.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47716&pDate=20160112
- [15] S. W. Seo & S. K. Woo. (2016).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2), 519-539.
- [16] H. S. Choi, H. O. Yoon & E. M. Yeon. (1998).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 :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2), 495-517.
- [1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Male Paternity Leave Increased Rapidly*. MOEL. <http://www.moel.go.kr>
- [18] H. H. Jeong & K. S. Choi. (1992).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ement. *Korean Association of Child*

- Studies*, 13(1), 38-51.
- [19] J. J. Bigner. (1977).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2), 89-106.
DOI : 10.1177/1077727x7700600201
- [20] R. C. Barnett & G. K. Baruch.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1), 29-40.
DOI : 10.2307/352667
- [21] K. Adamsons & C. Buehler. (2007). Mothering Versus Fathering Versus Parenting : Measurement Equivalence in Parenting Measur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7(3), 271-303.
DOI : 10.1080/15295190701498686
- [22] S. M. Ahn. (2013). *Father's Participation and Parenting Tim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3] J. S. Kim. (2000).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Rearing Involvem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4] H. J. Moon. (1998). A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11), 91-101.
- [25] A. S. Shin, K. H. Kim & J. E. Yoo. (2005). The Influence of Infant Temperament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on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15(3), 173-191.
- [26] J. E. Ryu, A. S. Sin & K. H. Kim, M. J. Song. (2016). Structural Relations among Infants Temperament,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Development*. 17(9), 279-291.
- [27] H. J. Lim. (2016). The Difference of Child's Problem Behaviors by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s Parenting Variables Cluster.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36(1), 37-55.
DOI : 10.18023/kjece.2016.36.1.002
- [28] J. Fagan & A. Iglesias. (1999). Father Involvement Program Effects on Fathers, Father Figures, and Their Head Start Children : A Quasi-Experimental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4(2), 243-269.
DOI : 10.1016/s0885-2006(99)00008-3
- [29] J. Pleck & B. Masciadrelli. (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S. Residential Fathers :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NY : Wiley.
- [30] R. H. Kang. (2001). The Fathers' care of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Social Competence-A Comparison of Single Income Families and Double Income Families. *The Society of Korean and Japan Education*, 5(1), 189-201.
- [31] B. Lee & K. S. Kim. (2013). The Difference of the Young Children's Play Characteristics and Self-Control According to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22(3), 191-206.
- [32] K. J. Chung & M. R. Park. (2013).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Nurturing and Children's Social Morality.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0, 43-64.
- [33] W. H. Kim, B. J. Seo & Y. C. Bae.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Recognition of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on Child-rearing Attitudes in Mothers with Children with Special Need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6(2), 355-372.
- [34] S. H. Noh. (200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athers' Self-Efficacy o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Involvement.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4(3), 45-59.
- [35] Y. H. Ahn, S. O. Hong & K. J. Hong. (2016). Relationship of Paternal Participation to Maternal Stress and Happiness in Parents of Disabled Preschoolers.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6, 49-78.
- [36] G. H. Kim & H. S. Kim.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5 Year-old Preschooler Parent's Social Economic Status and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22(4), 111-129.
- [37] S. M. Lee & H. Y. Min.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6(2), 219-225.
DOI : 10.5934/kjhe.2007.16.2.219
- [38] J. H. Kim, S. Y. Yang & J. H. Sung. (2013). The Effect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1), 87-102.
DOI : 10.5723/kjcs.2013.34.1.87
- [39] K. H. Kim & H. K. Kang. (1997). Research :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5), 141-150.

저 자 소 개

김 은 덕(Eun-Deok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성덕대학교 유아교육 전공
- 2012년 2월 :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 2014년 2월 : 숭실대학교 유아교육석사

▪ 2017년 11월 ~ 현재 : 서울한영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여성

박 찬 상(Chan-Sang Park)

[정회원]



- 2011년 2월 : 그리스도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 2017년 11월 ~ 현재 : 서울한영대학교 겸임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정책, 가족정책, 상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